



▶ 공개설명회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고심하고 있는 심사단

2010 아시아양봉대회 개최지 선정 공개 설명회 열려

- 부산·제주·대전 컨벤션뷰로 빅3의 치열한 경쟁 끝에 **부산**으로 결정 -

6월 27일, 한국양봉협회 안에서 미묘한 긴장감이 돌았다. 제10차 아시아 양봉 국제대회(AAA)유치 선정을 위한 공개설명회가 열리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에서 내로라하는 큰 컨벤션뷰로 중 부산, 제주, 대전이 유치의지를 강하게 보였고 협회에서는 이들을 한자리에 모아 공개 설명회를 개최하였다.

오후 1시 30분부터 본 협회가 위치한 제2 축산회관 대회의실에서 시작된 공개 설명회는 객관적이고 꼼꼼하게 각 컨벤션뷰로들의 공략들을 비교할 수 있도록 우건석 서울대 명예교수를 비롯한 각 학계 교수와 양봉 관련 단체장이 모여 심의하였다.

제주, 부산, 대전 순으로 진행된 공개 설명회는 비교적 차분했지만 열띤 경쟁을 벌였다. 처음 발표자인 제주는 다소 긴장한 듯 보였지만 제주 컨벤션과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공략을 보여주

었다. 제주의 가장 매력적인 점은 해외에서 들어오는 참석자들의 항공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었으나, 비싼 물가와 국내 양봉인들의 참가가 자칫 힘들 수도 있어서 심사위원들이 고심을 해야 했다.

다음으로는 부산이었다. 여성파워를 실감할 수 있을 만큼 여성특유의 상냥함과 치밀하고 꼼꼼한 준비로 깊은 인상을 남겼다. 부산의 가장 큰 장점은 관계 기관의 예산지원도 적극적일 뿐만 아니라 항공, 교통, 행사장 내 시설임대에 대한 혜택이 여러모로 크고 편리하다는 것이다. 다양한 경험을 내세워 심사위원들을 설득하는 당당함 태도가 엿보였다.

마지막 발표 주자는 대전이었다. 대전은 과학도시의 이미지를 앞세워 양봉대회 뿐만아니라 과학한국의 면모를 세계에서 몰려드는 양봉인들에게 홍보할 수 있다는 공략과 함께 행사장



시설과 주변 환경에 대한 매력을 설명하였다. 컨벤션뷰로의 행사장 시설과 주변 환경은 다른 컨벤션 뷰로와 견줄 수 있을 만큼 우수했으나, 관계 기관의 행정과 예산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안이 없어서 크게 어필이 되진 못했다.



▶ 제주컨벤션뷰로의 프레젠테이션 모습



▶ 부산컨벤션뷰로의 프레젠테이션 모습



▶ 대전컨벤션뷰로의 프레젠테이션 모습

공개 설명회가 끝나고 약 이틀간의 심의를 거쳐 제 10회 아시아 양봉대회 유치 장소는 부산으로 선정 되었다. 역대 어느 양봉대회보다 성대하게 치러질 것을 약속이 아닌 확신을 주겠다는 부산컨벤션 뷰로의 자신감에 깊은 신뢰를 표하며, 한국양봉협회 또한 역대 대회 중 가장 모범답안이 되는 행사로 만들겠다는 넓은 포부를 가지고 차근차근 대회 준비를 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